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를 묻다

16~17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 컨퍼런스

전기 자동차 타당성 논의·기타큐슈 성공사례 토론회

광주를 자동차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광주 자동차산업벨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산업으로서의 타당성, 향후 과제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린카진흥원·광주시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6·17일 양일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을 주제로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6일에는 광주의 선택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전기 자동차의 타당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17일에는 광주시의 자동차산업 육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본의 기타큐슈 사례

를 살펴보면, 광주 자동차산업벨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주제로 논의한다.

먼저 16일에 문승일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 원장이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차현록 박사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개발 ISSUE', 김희집 서울대 교수가 '전기차의 미래와 비즈니스 창출',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장이 '글로벌 전기자동차 플랫폼 제조'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17일에는 ▲최종일 조선대 교수가 '산업연관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광주 자동차산업육성 타당성' ▲이인화 조

선대 교수 '도구가 세상을 바꾼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 ▲박태훈 오사카 시립대 교수 '기타큐슈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본기업의 아세안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자동차산업벨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광주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민자치 모범사례 된 '광산구'

민형배 청장, 서울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서 사례 소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서 자유주제컨퍼런스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받아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사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 광산구 사례를 소개했다.



주민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 청장은 컨퍼런스 전날 열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 소속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마을만들기라는 공감대 속에서 관련 제도 개선, 정책개발, 기반구축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영산강변 '역새물결의 향연'

10월 3~31일 극락교~승천보 12km 역새생태문화제

극락교에서 승천보까지 12km에 달하는 영산강 길 역새꽃을 즐기는 '역새생태문화제'가 오는 10월3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광주시는 이 기간을 역새생태문화제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10월3일 주간 선포식으로 시작하는 역새생태문화제는 환경단체, 예술단체, 동호회가 만드는 시민참여형 행사로,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역새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중에는 ▲힐링 콘서트(라디오 공개방송) ▲역새꽃밭 걷기 대회 ▲자연거장국대회 ▲포토존 ▲정화활동 ▲환경사랑그림그리기 대회 ▲광주관광사진전 등 자연을 매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가을 관광주간(10월19일~11월1일)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역새생태문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인근 5개 시·군 축제 연계 팸투어,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민 '발명 아이디어' 만발

'광주시민경진대회' 110건 접수...광주시 14개 작품 선정

시민발명경진대회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특허등록 지원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2015 광주시민발명경진대회'에 총 110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4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참가 대상을 이공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서 일반 시민까지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광주지식재산센터 주관, 5개 자치구 후원으로, 지난 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시는 5월28일 예선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1차 기술 멘토링을 거쳐, 7월27일 본선심사에서 기술구체화, 실현가능성, 사업화가능성을 평가해 14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 작품은 9월까지 지식재산 교육과 2차 심화멘토링을 통해 특허출원과 3D프린터를 이용한 설계 및 제작,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리화를 지원받게 된다.

최종 선정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도 IP 창조존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최종 선정 작품은 오는 10월 초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KIA 이겨라" 동심도 한마음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지역 어린이를 초청해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 LG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광주시, 중국에 친환경 타이어 설비 550만달러 수출 지원

광주시는 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기간에 열린 수출상담을 통해 한일중합기계(대표 이정연)가 친환경 타이어제조 설비 550만 달러의 물량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타이어 제조 설비 업체인 한일중합기계는 소촌공단에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최근 시정 3층 비즈니스룸에서 중국 남경용정자동차장비기술 유한공사(대표 리원준)와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한일중합기계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광주시가 민선6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프렌들리 시책에 따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실효성 있

는 맞춤형 지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는 해외기업 19개사와 해외바이어 45명이 초청돼 국내외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펜션·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1억원 정도 투자)
■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옹벽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급매 - 17억 5000만원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조건 - 9월 23일까지 계약 후 10월 23일까지 완불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1년 후 대출 20억정도 가능
조정없음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2014년	2,793,538,410원	399,421,000원	99,730,000원	2,793,538,410원	1,506,780,000원	1,286,758,410원	319,022,000원
2015년	2,793,538,410원	399,421,000원	99,730,000원	2,793,538,410원	1,506,780,000원	1,286,758,410원	319,022,000원